

C등급 기업실사→워크아웃 개시→자금지원

D등급 자생 능력있는 업체, 시장 생존 가능

■워크아웃·퇴출 건설·조선사 어떤 절차 밟나

지역 중견 건설사와 조선사가 20일 금융권으로부터 퇴출과 워크아웃 대상 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이들 업체의 회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등급으로 워크아웃 대상이 된 대한조선과 삼남건설은 일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따라 자구 계획 등을 추진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할 때까지 채권행사는 유예된다.

기업실사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추가 대출과 대출상환 유예 및 전환 등이 이뤄져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선박 및 건설 수주와 납품 등 기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인력감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D등급을 받아 퇴출 대상 업체가 됐더라도 반드시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이번 건설 및 조선사 구조조정은 은행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향후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자생 능력이 있는 업체라면 충분히 시장에서 생존해 정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건설측은 "전국 85개 아파트 건설 현장 계약고가 5조원에 달하는 데 반해 총 부채는 고작 1천400억원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기업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주측은 또 2007년 9월 금융권의 신용등급 하향조치 이후 사실상 금융권 대출없이 1년6개월동안 버텨온 만큼 앞으로도 자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자구노력을 통해 7천5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지난해 매출액 추정액은 5천980억원에 달하지만 어음 발행 잔액은 277억 원에 불과해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C&중공업은 은행권의 결정에 따라 3차에 걸쳐 인수합병되거나 자산이나 부채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회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D등급 업체들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기업 등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1개월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 가능여부 등을 판단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채권·채무가 동결이 되고 법원이 파견한 관리인의 감독 아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이 개선돼 중간에 인수가 나타나면 매각될 수도 있고, 법원이 자체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졸업해 정식 기업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설 자금 방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설을 앞두고 20일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오는 23일까지 예년 수준인 3천억원의 설 자금을 내보낸다. /위적량기자 jrwi@

버스 700여대 추가 투입

금호고속 23~28일까지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사장 김성산)은 설을 맞아 귀성·귀경고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23~28일까지 '설 특별운행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여객 운송 대책을 마련했다.

금호고속은 이 기간동안 보유 버스 가동률을 극대화 하고 운수 협정 체결을 맺은 관광버스 700여대를 추가 투입해 고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고속버스 홀티켓 서비스'(www.kobus.co.kr)를 이용하면 직접 출력한 승차권으로 매표 창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버스 승차가 가능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스퀘어 내 통합상황실과 안내센터를 설치해 고객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샤넬의 굴욕?



매출 부진 매장 위치조정 다름 롯데백과 타협점 못찾고 짐 싸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 화장품이 국내 최대 백화점인 롯데백화점에서 철수한다.

롯데와 샤넬은 지난해 8월부터 샤넬 화장품의 매장 면적, 위치 변경안을 놓고 6개월여간 협상을 벌여왔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20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샤넬 측은 지난해에 소공동 본점을 비

롯해 잠실점, 영등포점, 노원점, 부산점, 대구점, 광주점 등 7개 점포에서 자사 매장을 20일자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백화점은 그동안 매출부진을 보여온 샤넬 화장품에 대해 매장 위치와 공간 재조정에 협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샤넬측과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 화장품은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24개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매출 순위가 5위에 그치고 있다. 1위는 국산 브랜드인 아모레 설화수, 2위 에스티로더, 3위 랑콤, 4위 디올 등의 순이다. 샤넬은 매출 순위 5위에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라는 이유로 가장 좋은 매장 위치와 넓은 공간, 수수료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롯데백화점 측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보험사 대출 연체율 작년 9월이후 급증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보험사의 대출 연체율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경기 부진이 가속화된 작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말 현재 보험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은 3.72%로 같은 해 9월 말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보험사 대출채권의 71.6%를 차지하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3.19%에서 3.31%로 0.12%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고개 든 '실적 공포' 환율↑ 주가↓

채권금리도 반등...트리플 약세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 다시 고개 든 '실적 공포'가 '오바마 기대감'을 누르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환율은 이틀째 상승했고 전날 급등했던 채권값도 반락해 금융시장이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일인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3.84

포인트(2.07%) 내린 1,126.81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4.94포인트(1.36%) 내린 358.1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기업 실적 악화 우려로 14.49포인트 하락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하락폭을 키워 장중 한때 1,115선까지 떨어졌다.

의료정밀, 은행, 전기가스, 보험, 운수장비업종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워크아웃과 퇴출대상 기업이 선정

된 건설주는 불확실성 해소로 강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매도를 동반한 주가 하락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초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2.0원 오른 1,37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달러 역송금 수요를 제공하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정필수기자 bungy@

중국어(中國語)로 대학입학하기

한국 중국

- ▶ **대학에 합격해 입학생** - 중국입학시험 합격후서면
- ▶ **중국정부 CCC** 통지서 접수(입학허가)
- ▶ **입학허가** (비자신청)로 중국비자 발급(중국정부)
- ▶ **입학허가** 중국정부(중국) 정부입국서 www.littlechina.com
- ▶ **대학입학허가, 입학허가** 입학생 모집
- ▶ **입학허가** (비자신청)로 중국비자 발급(중국정부) (비자신청)로 중국비자 발급(중국정부)
- ▶ **입학허가** (비자신청)로 중국비자 발급(중국정부) (비자신청)로 중국비자 발급(중국정부)
- ▶ **입학허가** (비자신청)로 중국비자 발급(중국정부) (비자신청)로 중국비자 발급(중국정부)

www.littlechina.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